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 박미자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E-mail : pmja23@korea.kr

우리아이들을 위한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놀이터에서 까르륵대며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 미끄럼틀과 그네를 타는 아이, 정글짐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도 있고, 모래밭에 주저앉아 흙장난 삼매경인 녀석들도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공기오염이나 화학물질 노출 등 악화된 환경으로 매년 5백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유럽에서는 5살 미만의 어린이 사망중 27%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천식은 지난 30~40년간 5배, 아토피는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어린이에 대한 건강보호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어린이의 행동 및 신체적인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당 2배 이상 호흡 등 대사량이 많고, 신경 및 면역체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어린이는 흙먼지가 묻은 손이나 오염된 장난감을 입에 넣고 빨며, 놀이터 등 바닥에서 덩구는 특성이 있고, 유해환경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EU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국가별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추진하고 어린이 장난감에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금지 등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환경보호청(EPA) 산하에 “어린이건강보호사무국”을 두고 EPA의 모든 정책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어린이 건강보호에 두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고, 자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대책(’06.5월)”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이 시행(’09.3.22)됨에 따라 체계적

표 1. 천식 유병률의 변화

연도	‘64년	‘83년	‘95년	‘03년 (6~12세기준)	‘05년 (0~4세기준)
유병률	3.4%	10.1%	13%	15.7%	18.6%

인 건강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을 3단계로 구분하고, 연차별로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며, 위해성이 확인된 활동공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단계별 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환경보건법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환경보건법에 따라 관리가 되지 않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존 실외 놀이터에 대해 놀이터 안전진단사업, 친환경놀이터 공모사업, 친환경 안심놀이터 표준모델 개발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안전관리기준중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권고 등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되는 유해물질도 다양하여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관세청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성 정보제공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셋째는 어린이가 스스로 위해요인을 인지하여 피할 수 있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환경건강 교육·홍보 수단으로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사이트(www.chemistory.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 등 어린이 실내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 추진 및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환

경성 질환 연구센터 지정·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가정, 학교 등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60년대 미국에서 러브캐널(love canal)에 유독물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여 이 지역 출생아중 60%가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문제 특히 어린이 건강문제에 있어서 사전예방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보호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유무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무해성이 입증되기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예방원칙에 기초하여 “후회하지 않는 정책(No regret policy)”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1. 환경부 지정 아토피 환경보건센터(삼성서울병원) 아토피 과학캠프 - 희망화분 만들기



그림 2. 이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

학교			
공원			
아파트			

그림 3. 다양한 친환경 안심놀이터 모델 개발(사진은 해외사례)

특집 : 실내공기와 어린이 환경성 질환



그림 4. 어린이 환경건강 인터넷포털 “케미스토리(www.chemistry.go.kr)”